‘사심사관’ 코로나시대 정서불안 소멸 해법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 10월 16일 학술대회 개최

코로나19시대 불교적 해답 제시
실체와 인식한 마음의 대상 달라
무상함으로 근원적 통찰 ‘마음변화’
‘사심사관’ 심리학 ‘탈중심화’ 유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과 은암문화재단이 10월 16일 김해 동림선원에서 학술대회 ‘코로나19, 불교가 답하다’를 개최했다. 사진은 발표하는 안환기 교수.

“유식학의 사심사관은 코로나 시대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심사관은 인식 대상의 본질을 통찰하여 번뇌를 소멸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서양심리학인 탈중심화와 비교할 때 유사한 점도 있지만 마음의 이미지와 표현하는 언어가 무상하다는 것을 관찰하는 사심사관은 불안을 근본적으로 소멸시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각종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과 은암문화재단(이사장 신공)은 10월 16일 김해 동림선원에서 학술대회 ‘코로나19, 불교가 답하다’를 개최했다.

안환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학술대회에서 정서불안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불교적 해답으로 유식학의 사심사관을 제안했다.

안 교수는 “사심사관은 ‘명칭이 붙여진 인식의 대상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것’을 관하는 것이다”며 “사심사관에서 사(事)는 사실 자체를 의미하며, 사(事)를 해석한 생각과 감정에 이름붙이는 의식작용을 관한다. 현실과 이를 해석한 생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통찰하는 점은 탈중심화와 비슷하다. 하지만 ‘사실 자체와 해석한 생각 그리고 정의하는 언어마저도 영원하지 않다’는 근원적인 통찰로 마음변화를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학술대회는 1주제 ‘펜데믹에 대한 초기불교적 대응’을 주제로 김한상 동국대 교수가 발표했으며, 2주제 ‘코로나19, 불교적 해석-정서불안, 사심사관, 탈중심화를 중심으로’는 안환기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가 발표했다. 3주제 ‘역사 속의 전염병과 불교의례’는 강호선 성심여대 교수가, 4주제 ‘코로나 시대의 불교포교의 활성화 방안’은 김영미 동국대 교수가 발표했다. 각 발표에 대한 논평은 우명주 교수(동국대), 김명우 교수(동의대), 윤종갑 교수(동아대), 신경스님(동국대)이 담당했다.

‘펜데믹에 대한 초기불교적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 김한상 교수는 명상과 경전 빠릿따 암송 그리고 자애와 연민을 코로나 시대의 대응법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초기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세계와 환경은 심리의 반영이다. 자애와 연민에 기반해 도성제인 중도를 실천하는 길만이 코로나19를 이기는 궁극적 해결책이다”고 말했다.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은 불교사상의 현대적 해석과 체계적 연구를 위해 2011년에 창립됐다. 매년 학술대회를 통해 시대과제에 대한 불교적 해답을 제시하고 있으며, 반야학술상 시상을 통해 연구 활동을 격려하고 있다.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반야불교문화연구원 원장 지안 스님과 은암문화재단 이사장 신공 스님 그리고 김성태 반야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의 인사말도 이어졌다. 지안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아픈 중생을 위해 약을 주시는 마음으로 법문을 하셨다. 이런 의미로 이번 학술대회는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고 격려했다.

신공 스님은 “코로나는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오늘 열리는 학술대회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불교의 역할과 방향을 새롭게 조명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이사장은 “이처럼 시기적절한 주제는 없을 것이다. 난국의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이라 믿는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관광지에서 ‘기도수행도량’으로”

해동용궁사 9월 9일 화엄사 말사 등록
주지 연규 스님 10월 20일 간담회 열어



“해동용궁사는 부산을 대표하는 유명관광지였습니다. 앞으로 해동용궁사는 동해 최고의 기도수행도량으로 인식이 바뀔 것입니다.”

부산 해동용궁사가 9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화엄사 말사로 등록했다. 주지 연규 스님<사진>은 10월 20일 경내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말사 등록을 발표하고, 화엄사 말사 등록을 계기로 해동용궁사가 불도(佛都) 부산에 어울리는 신심증장의 도량으로 탈바꿈할 것을 밝혔다.

연규 스님은 “수행처는 수행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며 “불자들이 도량을 찾아 기도할 수 있는 수행처가 될 수 있도록 주변을 재정비하고 정기법회를 통해 불법의 전령사가 되도록 할 것이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어 “매년 수륙대재를 봉행하고 국운융창을 발원하는 호국도량의 역할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스님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산불교계와 협력하고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전했다.

스님은 “아시겠지만 해동용궁사는 개인사찰이었다”며 “이제 조계종 화엄사 말사로 등록하고 첫 출발을 맞았다. 지역민과의 소통도 잊지 않을 것이며 범어사를 비롯해 부산불교계와 소통하고 포교의 역할을 함께 담당하는 사찰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주지 연규 스님은 1999년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은해사 기획국장, 대구 팔공산 갓바위 부주지, 향일암 총무국장, 대구 운흥사 주지, 의왕 용화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종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해동용궁사는 이날 우하람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훈련비 300만 원을 지원했다. 우하람 선수는 도쿄올림픽에서 4위를 기록한 다이빙 부문 국가대표 선수이며 다이빙 불모지인 한국에서 다이빙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선수로 알려져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장안사 인근 산폐단지 사업 ‘폐기’

부산시 10월 12일 기장군에 사업접수 취하 공문발송

장안사, 철회 환영 간담회 열어
“뜻 모아준 장안읍 주민께 감사”
장안로 ‘장안사로’로 변경 추진

천년고찰 장안사(주지 무관) 인근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사업 승인이 정식 철회됐다. 부산시는 10월 12일 기장군에 공문을 보내 사업접수가 취하되었음을 알렸다. 장안사는 10월 19일 경내 설법전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함께 뜻을 모아 준 장안읍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기장군의 환경보호와 도량 수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간담회에는 주지 무관 스님을 비롯해 김성국 장안읍주민자치회 위원장, 김정대 장안읍이장협의회 회장, 박태현 (사)장안읍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무관 스님은 “장안사는 신라 문무왕 당시 원효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이다. 이번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철회는 주민들과 불교계가 함께 뜻을 모아 이뤄낸 결과이다. 수행도량 수호를 위해 함께해준 부산불교연합회 관계자와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성국 위원장은 “불교계 관계자를 비롯해 언론사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장안사는 이곳 주민들에게 정신적 지주와 같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청정한 기장군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소원이 담겨 더욱 의미가 깊어졌다”고 말했다.

장안읍은 이번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철회를 계기로 장안사의 사격을 더욱 높이기로 결의하고 장안로(長安路)를 장안사로(長安寺路)로 명칭을 변경한다. 장안사로는 장안사를 시작으로 부산 기장 기룡리 454-3번지에 위치한 동부산관광호텔까지 총 4.5km이다. 장안읍은 다가오는 10월 29일 마을 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변경 절차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성주사, 시민과 함께하는 산사문화제 성료

괘불탱화 점안식 및 산사음악회 등 열려

창원 천년고찰 성주사(주지 법안)가 10월15일부터 16일까지 경내 일원에서 시민들을 위한 산사문화제를 개최했다.<사진> 산사문화제는 성주사의 불교문화재 및 전통문화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전통 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이다. 성주사는 먼저 10월 15일 ‘오여래 괘불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오여래 괘불탱화’는 가로 6미터, 세로 9.5m 규모이며 금어 정로 스님의 작품이다. 점안식에는 성주사 조실 흥교 스님, 주지 법안 스님, 백운사 석봉 스님, 김이순 신도회장, 박해덕 경남포교사단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성주사는 점안식과 함께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2호인 불모산영산재를 봉행하며 코로나19 극복과 국운융창을 기원했다.



산사음악회는 10월 16일 개최했으며 불교의 전통 의식인 예불을 시작으로 금관 5중주단 연주, 신비의 크로스오버 공연, 경남리틀싱어즈의 무대 등이 열렸다. 아울러 전시를 비롯해 체험 부스를 마련해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조실 흥교 스님은 “괘불탱 점안식을 통해 여러 모든 대중들이 자신의 본성을 알고 자비와 지혜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힘든 시기이지만 마음의 힘으로 희망을 향해 정진하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주지 법안 스님은 “다섯 분의 부처님 조성 점안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갈등이 회복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회복되길 바란다”며 “부처님을 의지해 수행 정진한다면 부처님의 법향이 만방에 드날려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계기를 얻을 것이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통도사 창원포교당 ‘극락보전’ 봉불식

통도사 창원포교당 안국사(주지 법본)가 10월 21일 법당에서 극락보전 봉불식을 봉행했다. 봉불식에는 안국사 주지 법본 스님, 통도사 염불원장 영산 스님, 통도사승가대학장 인해 스님, 부산불교대학 학장 범혜 스님, 등명불교대학 부학장 천산 스님, 황규종 의창구청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주지 법본 스님은 “2년 전, 안국사 주지 소임을 맡아 행사용 천막 하나에 부처님을 모시고 또 다른 천막에 저의 책과 짐을 넣고 노숙하며 불사를 시작했다”며 “부처님의 가피와 위신력으로 안국사가 세워졌고, 오늘 1층 극락보전에 아미타부처님을 모셔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곳 안국사는 부처님법을 잇고 한국 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아울러 불지종가 통도사의 정신과 문화와 가풍을 널리 알리는 공간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범어사 ‘문화의 종(鐘)’ 타종식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가 10월 16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종각에서 ‘문화의 종’ 타종식을 봉행했다.

‘문화의 종’은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앞에 위치한 종각에 봉안됐으며 범어사 선문화가 온 세상의 생명을 위한 법음이 되어 줄 것을 바라는 불자들의 염원이 담겼다.

주지 경선 스님은 “범어사는 선문화교육관, 시민을 위한 템플스테이관 그리고 개관을 앞둔 박물관이 있는 불교문화공간이다”며 “‘문화의 종’은 중생의 마음을 새롭게 할 ‘정신문화의 종’이다. 종소리가 사바세계 만방에 퍼져 우리의 정신문화를 정화하길 바라며 부산시민이 이곳 문화공간에서 참된 쉼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무료사전등록 안내 | 사전등록하고 무료입장하세요 2021.11.11(목) ~ 11.14(일)

서울국제 불교 박람회

2021.11.11(목)-11.14(일)
STEC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3호선 학여울역 1번출구)

사전등록 바로하기>
우측 QR코드를 핸드폰의 카메라로 스캔하면 사전등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슬로건 | 살아있는 전통문화의 꽃
2021 주제 |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지혜 Green Life
누리집 주소 | www.bexpo.kr
접수 문의 | 02.2231.2013

사전등록 방법
홈페이지 접속 www.bexpo.kr 또는 큐알코드 스킨 > ‘온라인 사전등록’ 클릭 > ‘사전등록 신청하기’ 클릭 > 내용입력 > 등록완료

* 단체관람을 희망하는 사찰, 단체는 사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
* 2021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철저한 방역 하에 진행됩니다.

02.2231.2013 | www.bexpo.kr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주관 불교신문 불광미디어 BulkwangMedia 기획·운영 MIND DESIGN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Association of Korean Buddhist Orders 문화재청 KOREA TOURISM ORGANIZATION 한국관광공사 동국대학교의료원 dongguk university medical center Hansol 한솔PNS